

한국가족윤리 변천에 관한 연구*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Ethics in Korea*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정덕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순옥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허식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경신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 Lee, Chung Duk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 Ok

Dept. of Communication, Cheong-Ju University
Professor : Park, Huh Sik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Kyeong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연구내용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ethics as appeared in Korean histo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nsist of two parts: literature reviews on the specific features of family ethics with lived history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to 1950 decades and a survey research on family ethics and its transition after 1950 decades. For the latter,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different each generations, from which 1194 data were obtain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이 논문은 199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The transition of thoughts such as Buddhism, Confucianism and the change of economics condition are found to have impact on the family ethics in Korea. In contemporary history, The Korean War(6·25) had great influent on the change of the family ethics. Recently the conflict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family problems are influenced by the variables such as generation and sex, especially with the changes of consciousness of feministic perspective.

More over, while only miner change had appeared in Family Ethics during the society still remained in Eastern Value orientations before Cho-seon dynasty, the transformation Family Ethics seems to be the greatest with the cultural shock by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Values depending on the religions and locality. Nevertheless, family-Centered orientations and confucianism(Hyo) have continued to remains as relatively important values.

I. 서론

윤리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컬으며(한글학회, 1991), 윤리의 근본 원리는 심리학적 가치설에 입각할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욕구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인간의 기본 욕구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볼 때, 가족원의 욕구 분출로 인한 갈등은 '가족관계의 도덕적 행동규범'인 가족윤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윤리란 가족성원 각자가 자신의 욕구 충족의 극대화를 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김태길 외, 1991)로서의 체계를 말한다.

또한 윤리의 체계는 그 나라의 전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문제상황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오므로(김태길, 1996),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윤리관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의식 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심화될 때 여러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되게 된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러한 때에 올바른 윤리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윤리에 관한 접근은 전체적인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손인수, 1983; 홍승직, 1971)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졌고, 가족가치관, 가족관계의식에 관한 연구(지교현, 1973) 혹은 자녀윤리의 핵심인 효의식, 효행에 관한 연구(성규탁, 1989; 성미애·육선화, 1997)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가족윤리의 특성을 가족문제나 가정교육적 관점에서 연결시킨 연구(이정덕, 1985; 지교현, 1986; 지영숙, 1994)도 있으나 특정 문헌에 국한되거나 통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가족윤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대적 삶을 추적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하여 문헌연구를 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한국 가족윤리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동론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할 때 유용한 분석법 중 하나가 기축론적 접근이라고 보고(전석호, 1996), 한국가족을 고대로부터 고려말기까지(전통적 가족 속에 불교가 가미된 가정문화기), 조선조 개국부터 일본문화가 수입되기 이전까지(유교가정문화기), 일본문화 침투로부터 서구문화 도입 이전까지(일본형 가정문화 침투기), 서구식 가정문화가 유입되어 한국전통 가정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한 6·25 전쟁 이후부터 산업구조가 해체되어 공업중심의 산업사회로 이전되고 있는 현재까지(한국형 산업사회 가정형성기)로 나누

어 분석해 봄으로써 농경사회, 일제 식민사회, 전기 산업사회로 부터 후기 산업사회(정보화 사회)로의 배경에서 노정되어 온 한국가족윤리의 맥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가족윤리의 가변적 요소와 불변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며, 가변적 요소의 구체적 실천행위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 사회변인들 중에서 이처럼 행위로서의 가치실현적 내용을 변화시키는 변인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윤리관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1. 연구범위

1) 가족윤리영역

가족윤리 영역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먼저 지교한(1986)은 가정윤리를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옥선화(1984)는 가족가치관을 가족을 형성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배우자선택과 결혼관,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누어 관련연구들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박혜인(1990)은 가족가치관을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김순옥·류점숙(1984)은 결혼관, 역할관, 부모부양관, 가족중요도 등으로, 김일명(1988)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이나 친족의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박진숙(1984)은 가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등으로 나눈바 있다. 이밖에 가족윤리나 가치관을 다룬 연구들은 결혼관이나 자녀양육관, 성역할관, 효에 관한 의식 등 개별 주제를 다룬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개념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가족윤리관은 크게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부차적 영역을 첨가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결혼 및 부부윤리, 성역할윤리, 자녀윤리, 부양 및 효도윤리,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 등으로 집약될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영역 구분을 통하여 가족윤리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대적 구분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가 어떻게, 왜 변모되어 왔느냐에 관한 것으로, 한국의 역사를 일괄해 보면 수많은 시대적 전환점을 맞게 되며 이때마다 전체사회의 각 측면이 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변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온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되 특히 가족윤리의 변화가 어떠한 이념적 기층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는가를 중시하여 한국가족윤리의 변천과정을 네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 단계는 고대로부터 고려말기까지로 전통적 가족 속에 불교가 가미된 가정문화기로 보았고, 두 번째 단계는 조선조 개국부터 일본문화가 수입되기 이전까지의 유교가정문화기로 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는 일본문화 침투로부터 서구문화 도입 이전까지의 일본형 가정문화 침투기로 보았다. 특히 이시기는 일본이 조선에 근대신문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한성순보 창간을 통해 일본식 서구문물을 전파시켰던 1883년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전쟁이었던 6·25 전쟁에 의해 봉건적 사회체제가 철저히 파괴되기 직전의 시점까지 다루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서구식 가정문화가 유입되어 한국전통 가정문화가 해체되는 시기로, 농업중심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공업중심의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한국형 산업사회 가정형성기로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가족윤리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 고대부터 1950년 6·25전쟁시까지의 각종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1950년 이후의 가족윤리 변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년세대와 중년세대, 청소년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변화의 흐름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문헌연구를 통해본 고대부터 1950년까지의 한국

가족윤리의 내용과 특성은 어떠한가?

-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1950년 이후 한국가족윤리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 고대부터 고려말기까지

주된 분석자료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이며 이 세문헌을 분석자료로 선정된 것은 문화적 맥락 이해에 있어서 문화내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김영찬, 1982)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는 우리 선조에 의해서 기술된 史料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실제 행해진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는 본 연구의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三國史記는 李丙燾(1984)의 번역본(正德本을 대본으로 함)과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1958)의 번역본(朝鮮史學會本과 正德本을 대본으로 함)을 참조하여 朝鮮史學會本을 분석하였다. 三國遺事의 분석은 李東歡 校勘으로 民族文化推進會에서 1973년에 낸 영인본과 한국 불교전서 본 (1984)을 대본으로 하고, 국역된 자료(李丙燾, 1987, 리상호, 1990, 李家源, 1994등)를 참조하여 原典을 분석하였다. 高麗史의 분석은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에서 낸 國譯 高麗史,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낸 北譯 高麗史 등의 번역을 참조하여 原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가족관계의 제양상과 관련된 사례를 추출하여 이들 사례를 가족윤리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가족윤리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규범 집인 李栗谷의 聖學輯要, 同居戒辭, 擊蒙要訣과 李退溪의 退溪集과 言行錄, 宋時烈的 戒女書, 朴文鎬의 家則과 居家禮, 李德懋의 士小節 등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1883년부터 1950년까지

이 시기의 가족윤리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고 그 수도 극히 적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윤리의 변동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신문에 나타난 가족윤리에 관련된 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잡지나 견문기록 및 총독부 수집 민속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을 분석의 주 텍스트(Text)로 한 이유는 첫째, 신문은 변모되고 있는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둘째, 변화의 성격과 정도 및 방향을 시계열적(時系列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셋째, 일반 대중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절차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년기, 중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노년기 세대는 1950, 60년대에 성인기를 지낸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년기세대는 노년기의 자녀세대인 40대를 주축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세대는 중년기의 자녀세대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의 경우 관련 전공 대학생 20명을 교육한 후 면접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총 배부수는 1300부(노년기 300부, 중년기 650부, 청소년기 350부)로서 이 중 1230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되거나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총 1194부(노년기 253부, 중년기 613부, 청소년기 32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10월 6일 부터 10일까지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분석된 자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노년기, 중년기, 청소년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으며 연령은 노년기의 경우 66세-70세 사이가 29.2%로 가장 많고 중년은 40대가, 청소년은 17세가 가장 많다. 교육수준은 노년기의 경우 국졸자(57.3%), 중년은 고졸자(52%)가 가장 많으며 종교는 노년, 중년의 경우 불교가 많고, 청소년은 무

종교, 기독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노년은 50만원 이하(64.4%), 중년 및 청소년이 응답한 가족소득은 100만원대가 가장 많으며 직업은 노년은 무직(58.9%)이, 중년은 자영·서비스직(34.4%)이, 청소년이 응답한 부의 직업은 사무직(42%)인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출생순위는 노년, 중년의 경우 중간이, 청소년은 맏이가 가장 많고 가족형태는 노년은 확대가족이 51.8%으로 핵가족보다 더 많으나 중년, 청소년은 핵가족이 88%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노인, 중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사용하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등 관련독립변인과 사적 고찰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윤리관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결혼 및 부부윤리는 강은숙(1981), 송재희(1988), 홍준숙(1987) 등의 연구를 참고하되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부윤리관의 내용으로 주로 언급되어 온 결혼의 당위성, 배우자선택방식, 정조의식, 婦道, 이혼 및 재혼의 수용성 등을 묻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성역할윤리는 김동일(1991), 정종희(198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성고정관념, 전통적 남녀역할윤리 등을 묻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녀윤리는 고정자(1983), 강숙경(1992), 양명숙(1996), Borman & Stockdale(1979), Leavy & Hough(198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녀에 대한 관념, 자녀의 복종의식, 남아선호윤리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양 및 효도윤리는 김송애(1991), 서병숙(1988), 허훈(1988) 등의 연구를 참고로 부모부양의 당위성, 동거부양의식, 부모존중윤리, 실천방법상의 효윤리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는 김규원(1995), 김일명(1989), 옥선화(198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확대가족우선주의, 가부장중심주의, 친족중요도인식, 가족의 중요성 인식, 가훈중시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관련전공자 8인으로부터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조사에 사용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0.68 0.86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윤리관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가 산출되었고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test가 이루어졌다. 이들 자료는 PC용 SAS program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문헌연구를 통해 본 한국가족윤리의 내용과 특성

1) 고대로부터 고려말기까지: 전통적 가족속에 불교가 가미된 가정문화기

(1) 결혼 및 부부윤리

먼저 배우자 선택의 조건에 있어 연령을 살펴보면(三國遺事 赫居世王, 駕洛國記, 金現感虎, 溫達, 強首條) 남자는 13세가 한 사례, 20세가 한 사례, 여자는 13세~16세사이로 나타나 남자는 13-20세정도, 여자는 모두 10대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¹⁾ 여자의 초혼 연령은 대개 10대가 가장 많았고, 남자는 10대-20대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남편 연상형의 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사례 1> 두 성인의 나이가 열세살이 되자 오봉 원년 갑자(건 57)에 남자는 위에 올라 왕이 되고 이어 여자로서 왕후를 삼았다(三國遺事 권제 1 紀異 제 2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 <사례 2> 저는 아유타국 공주로서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그의 배필로 삼게 하라(三國遺事 권제 2 紀異 제 2 駕洛國記條).
- <사례 3> 처녀는 나이가 열네댓 살이나 되었는데, 징이 드디어 사위로서의 예절을 치르고 바로 자기가 타던 말에 그를 태우고 갔다(三國遺事 권제 5 感通 제 7 金現感虎條).
- <사례 4> 평강공주가 자라 16세가 되었을 때 왕은 그를 상부의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三國史記 권제 45 列傳 제 5 溫達條).
- <사례 5> 강수는 늘 부곡의 대장간집 딸과 아합하여 그의 정이 자못 두터워졌는데 나이가 20세가 될 때 그 부모는 읍내의 여자로서 아내를 맞게하려 하였다(三國史記 권제 46 列傳 제 6 強首條).

또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출신지역, 신분, 가문 등의 요인을 보면 서동에 관한 이야기(三國遺事 武王 條), 환웅 이야기(古朝鮮檀君王儉 條), 駕洛國記 등에서 출신지역, 신분과 가문 등에서의 이질적인 요인을 극복한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형태에 있어서는 배우자 선택시 자유 연애를 통한 결혼의 형태를 보인다(三國遺事 金現 感虎, 武王, 強首, 金庾信 條). 재혼에 있어서도 여자의 재혼이 큰 흉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남편의 친구와 재혼하는 것을 부도덕 하게 여기는 의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과부가 된 공주의 재혼에도 아무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다시 재혼을 해서 왕비가 되는등

이 시대는 여자의 재혼문제에 대해 신분의 고하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三國遺事 元曉 不羈, 廣德嚴藏 條, 高麗史 文德王后劉氏, 順妃許氏 條). 그러나 여자가 再嫁를 하였을 때 남의 지탄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黃裳의 妻 元氏처럼 夫의 喪期를 마치기 이전에 재가한 경우이다(「高麗史」권 제 114 列傳 제 27 黃裳 條).

이처럼 배우자 선택의 조건과 결혼형태에 나타난 결혼의 실상을 통해 이 시대의 부부윤리의 특성을 보면 확일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의 조건에서 신분과 가문을 중시하는 결혼, 또는 신분, 가문, 지역 등의 모든 이질적 요인을 극복한 결혼, 결혼으로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결혼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결혼 형태에서도 자유 연애를 통한 형태등이 나타나고 재혼에 있어서도 신분과 상황의 다양함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시대의 부부윤리의 특성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주와 왕비와 같은 신분이 나 광덕의 아내의 경우와 같은 일반인에게 있어서 이중규범이 적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여자의 재혼이라는 문제에 대해 貞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이는 윤리적 상황이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히 융통적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 성역할윤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관에 있어서 남편에게는 '다스리고 거느리는 것'을, 아내는 '유순하게 받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高麗史 恭讓王 條), 국정에 적극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高麗史 成平王后任氏 條, 三國遺事 駕洛國記 條).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政事를 함에 있어 신하들의 보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기사(「高麗史」 권제 88 列傳 제 1 宣靖太后金氏 條)와 맥을 같이한다. 더 나아가 신라시대 여왕이 세명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여성이 단순히 유순하게 받드는 역할만 수행했다기 보다는 여성의 능력이 인정받고 기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한 三國遺事 塔像 4나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화왕후와 같은 왕족에서부터 貧女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여자의 지위가 남자와 평등관계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자녀윤리

三國遺事 孝善 9 眞定師 孝善雙美에서는 부모 봉양이라는 현세적인 孝와 출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효도가 출가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음을 거듭 일깨우고 있다. 여기서 어머니는 물질적 孝만이 아니라 정신적 孝의 측면과 함께 자식이 더 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孝라고 강조 하고 있다. 高麗史 列傳 제 3 大覺國師條에서도 왕자가 출가하기를 원하자 부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식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자식을 떠나보내 줄아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다. 즉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부모-자녀간 윤리는 건강한 개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각자의 선을 넘지 않는 역할을 충실히 시도하는 쌍무적 윤리임을 나

타내 준다.

또한 高麗史 列傳 제 22 李穀 條에서 보면 “딸을 낳으면 애지중지하게 키워 장성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딸이 부양해 주기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딸, 아들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부양자인 딸에 대한 기대가 더 큼을 알 수 있고, 高麗史 世家 3 成宗 9년 條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살아 계실때나 돌아가셨을 때 모두 잘 모신다는 내용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딸의 역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관을 통해본 부모-자녀간의 윤리는 건강한 개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각자의 선을 넘지 않는 역할을 충실히 시도하는 쌍무적 윤리임을 나타내 준다. 이처럼 쌍무 호혜성은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으며, 오히려 부모 부양에서 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대의 孀留婦 家婚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4) 부모부양 및 효도윤리

三國遺事 紀異, 塔像, 列傳, 孝善 등을 보면 자식은 佛事라는 방식을 통해 孝를 실천하고 있고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해 佛事を 통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 있어 일방적 관계를 떠는 것이 아니고 쌍방적 윤리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희생에 의한 효행의 기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三國遺事 塔像 4 孝善 제 9條, 三國史記 列傳 제 8 景德王 14년 條, 高麗史 列傳 제 34 條), 이러한 효의 대가를 국가로 부터 받는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국가로부터의 보상이 상당히 크다고 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효행이 지극한 덕행으로 평가되고 칭송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까지 효행을 하는 효자·효녀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수가 많다면 그렇게 많은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조선조 개국부터 일본문화가 수입되기 이전까지: 유교가정문화기

(1) 결혼 및 부부윤리

율곡은 광형(匡衡)의 말을 인용하여 “배필은 사

람을 낳는 시초가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되어야만 만물이 이루어져 천명을 다하게 된다”(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正家편, 形內장, 1985: 213)하여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첫단계로써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퇴계집 40권에서 보면 부부관계는 禮敬과 和順으로 표현한 바, 부부사이의 친화는 감정의 단계를 넘어 예법에 따라 공경하는 윤리적 단계라고 하였다. 이퇴계는 손자 安道에게 부부관계가 얼마나 기초적이고 소중한 지를 지적하며 부부라는 것은 인륜의 처음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하고 가까워도 역시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삼가는 자리라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禮를 중시하여 모름지기 지아비는 따뜻하면서도 의로써 규제하고, 아내는 유순히 올바르게 받들어 부부간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아야만 가정의 일이 다스려 질수 있다. 아내가 만일 나의 몸가짐과 말이 한결같이 바른 것을 보게되면 반드시 차츰 미더워지면서 순종할 것이다(국역 율곡전서 VI, 격몽요결, 1988: 16)라고 하였다.

이덕무는 남편의 자질을 가정의 근본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 화순한 가풍을 쌓아 가족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아내가 재주와 지혜가 있어도 남에게 자랑하여서는 안된다(이덕무, 1993: 120)고 하였다. 율곡은 부인의 자질을 程子の 말을 인용하여 “집안사람의 도로서는 여자가 발라야 이로운 것이 있다. 여자가 올바르게 되면 곧 家道가 바로 된다. 다만 여자의 정절만을 말한 것은 여자가 올바르게 되면 남자도 바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여자가 올바르게 가정은 물론 남자까지도 올바르게 된다고 하였다(국역 율곡전서V 성학집요, 정가편, 刑內장, 1985: 212). 또한 “옛날의 부인들은 남편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혹은 올바른 도리를 권하고 혹은 바르게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이 없는 데로 이끌어 들였으며 부녀자가 남몰래 덕행을 쌓으면 그 아들딸들이 번성하고 잘 자란다”(이덕무, 1993: 200)고 하였다.

(2) 성역할윤리

율곡의 성학집요 근엄장에서는 “남자는 안일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깥일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한다. 제사지낼 경우와 상을 당하였을 때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주고 받지를 아니한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할 경우라면, 곧 여자가 네모난 대광주리로서 받는다. 그 대광주리가 없으면, 곧 모두 앉아서 그것을 바닥에 놓아야만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과 밖에서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욕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잠자리를 두루 통하게 아니하고 빌어 쓰는 일을 두루 통하게 아니하며,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통해서 입지 아니한다. 여자가 문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그 얼굴을 싸서 가리고, 길에서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여자는 왼쪽으로 다닌다”(국역 율곡전서 V, 정가편, 謹嚴장, 1985: 240)라고 함으로써 부부유별 및 남녀유별을 말하고 있다.

율곡은 詩經을 인용하여 “똑똑한 남편은 城을 이룩하고 똑똑한 부인은 성을 기울여뜨린다. 부인의 수다스러움은 재해를 불러들이는 계제일진데, 어지러움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부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리라”(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정가편, 형내장, 1985: 219)고 하여 남녀의 차별적 역할의식을 언급하였고, 이덕무(1993, 198-247) 역시 부인은 성품이 온순해야 하고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며 남편의 성품이 비록 사납게 조급하더라도 부딪쳐 격하게 하고 이길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고 그의 뜻을 받들어 공순하고 정성을 다하는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체로 오륜의 부부유별은 성적인 차별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남녀의 유별을 강조하고 있다.

(3) 자녀윤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는 자녀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덕무는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망치고, 딸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다.

고식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버려두는 것은 한없는 근심과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니, 나의 아들 딸 된 사람으로서 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금수와 다름없이 될 것이니 어찌 두려운 생각을 아니 하겠는가”(이덕무, 1993: 237)라고 하였다.

이덕무는 사소절의 童規편에서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조금이라도 간악함이 없고, 아버지가 주신 몸은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한번 생각을 하는데도 다 법칙이 있어야 하고, 한번 행동을 하는데도 다 격식이 있어야 한다. 그 의복을 정제하고 그 음식을 절제하는 등 어려서 표준이 없으면 자라서 더욱 잘못되는 법이다”(이덕무, 1993:273)고 하여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이 성장 후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시열(1986)은 戒女書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녀교육내용으로 “어렸을 때부터 속이지 말고, 너무 때리지 말며, 글을 배울 때도 순서없이 권하지 말고, 하루 세 번씩 권하여 익히고, 잡된 장난은 못하게 하고, 보는데서 드러눕지 말게 하고, 세수를 일찍하게 하고 친구와 약속을 했거든 지키게 하여 남과 실언치 말게 하고, 잡된 사람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일가 제사에 참례케 하고, 온갖 행실은 옛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4) 효도윤리

퇴계는 부자관계의 친화를 모든 인간관계에 앞서서 확보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인륜으로 친애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의 소유에서나 거처의 분리로 친화가 감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를 섬기는 일중에 중요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인데, 율곡은 사랑과 공경이 함께 지극하면 그것이 바로 효자의 道(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 190)라고 하였다. 이처럼 율곡은 인간형성에 있어서 부자의 윤리 즉 효를 첫째로 강조하고 있는데, 효도는 모든 행동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는 효도와 공경하는 일을 그 첫째로 삼는다(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 189)고

하였다. 부모를 섬기는 효도를 옮겨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성이 되며, 부모를 섬기는 공경을 옮겨서 웃어른을 섬기면 곧 순함이 된다(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고 하여 효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율곡은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일은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공경을 다하고, 奉養할 때는 그 즐거움을 다해 드리며, 병환에 계시면 그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다하고 祭祀를 받들 때에는 그 嚴肅함을 다할 것이니, 이 다섯가지를 다 갖춘 연후에야 능히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다(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정가편, 효경장, 1985: 192)고 하였다. 따라서 효는 부모 생전의 도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후에까지 행해야 할 도리가 있어 자식이 나서 삼년이 되어야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삼년상을 지내는 것은 천하에 공통되는 상례라 하였다. 따라서 율곡은 제사에 있어서 공경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난하면 집의 형편에 어울리게 하고, 병이 있으면 자신의 기운을 헤아려 제사를 지내야 한다. 재물과 자신의 기운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의당 의식대로 행해야 한다(국역 율곡전서 V, 격몽요결, 제례장, 1988: 15)고 하였다.

(5)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

율곡은 격몽요결에서 “형제는 부모가 끼쳐 준 몸을 똑같이 받았으니 나오는 한 몸과 같다. 당연히 저와 나의 간격이 없이 생각하여 음식과 의복을 있고 없는데로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형이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곧 한몸 가운데서 팔다리와 몸이 한 군데는 병들고 한군데는 건강한 것이다. 몸과 마음이 어찌 한 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형제사이에 서로 우애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에서 연유한 것이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에게 만일 착하지 못한 행실이 있으면 의당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진정으로 규 간하여 차츰 이치를 깨달아 기어코 감동케 해야 한다. 갑자기 성난 기색과 거슬리는 말을 나타내 화기

를 잃어서는 안된다”(율곡전서 VI, 격몽요결, 1988: 16)라고 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부모에 대한 효와 관련지어 강조하였다.

기타 친족윤리에 있어서도 율곡은 친척을 친애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식에 대한 慈愛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는 친척을 친애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친한 이를 더 친히 하는 것은 집안의 급한 일인데, 친한 이를 더 친하게 하는 일은 한가지 道만이 아니다. 한 宗族 가운데는 어질고 어리석은 것이 같지 아니하며, 돈독하고 화목한 은혜는 마땅히 균일하여야 하며, 取하고 버리는 것을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정가편, 친친장, 1985: 235, 238)고 하였다. 율곡은 실제 부모에 대한 효경 뿐만아니라 백부나 숙부와 같은 어른을 어버이 禮로 섬기고, 傍親의忌日에도 비록 제사에 참례하지 않더라도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가능하면 백부나 숙부 또는 형제의 제사에도 참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덕무는 사소절(1993: 255)에서 친족간에 지켜야 할 도리로 “옛날부터 가까운 친척이 서로 다투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으니 이를 저울 삼아야 할것이다”고 하였고 “친척간에 좋게 지내지 못하면 감히 밖과 사귀지도 못한다”고 하여 친족간 화목함의 중요성을 말하였으며 다양한 친족들간에 지켜야할 도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3) 1883년 일본문화 침투로부터 1950년 6·25 전쟁 이전까지: 일본형 가정문화 침투기

(1) 결혼 및 부부윤리

부부윤리에 대한 담론은 1900년을 전후해 집중되고 있는데, 개화지식인들은 부부평등을, 전통적 보수계층은 유교적 부부유별(夫婦有別)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을 살펴보면 부부평등을 주장한 개화지식인들은 그 논거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일월(日月)을 만드사 태양은 낮이 되게 하시고 태음은 밤이 되게 하셨으니 음양의 권리가 일반이 되어 독양(獨陽: 양 홀로)이 능히 만물을 내지 못하고 독음(獨陰:

음 홀로)이 능히 만물을 기르지 못하며, 사람이 그 가운데 생하니 또한 음양의 권리를 나누어 갖은지라. 처음에 여자가 남자를 좇아 났으니 여자에게 산육(産育)하는 이치를 마련하신 고로 남자가 여자 아니면 자손을 전할 수 없는지라. 그런즉 음양의 권리가 같을 뿐 아니라 남녀의 권리 또한 동등하다」(독립신문, 1898. 5. 26. 「논설」)는 우주생성론적 음양이론의 평등적 신해석과, 남편과 아내는 가정 내에서 구조·기능상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부부유별(夫婦有別)을 고수하는 보수계층은 그 논거로 음양중 선후(先後)를 가린다면 양이 선(先)이기 때문에 가정도 부부로 이루어지나 부부중 선후를 가린다면 양(陽)에 해당하는 남편이 선이라는 음양의 차등론을 들고 있고, 공자나 맹자가 학문으로 인민을 가르쳤는데, 이때 인민은 여성을 포함한 인민이 아니라 여성을 제외한 남자만을 의미한 것이었으며, 암탉이 울어서 날이 새는 이치가 없는 고로 여자는 남자의 오장(五臟)에 불과하고, 개화지식인들이 주장하기를 인구의 절반인 여자는 비생산적 노동인구에 속하여 나라가 발전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은 남자의 경우도 직업이 없어 살기 어려운데 여자들끼리 직업을 갖게 되면 가장인 남자들의 직장이 더욱 적어지며,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남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지 여자가 아니었고, 서양 각국에서 남자가 여자를 敬待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원래 강하고 여자는 원래 약하기 때문에 남자의 강함으로써 여자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들고 있다(독립신문, 1987. 12. 31).

이와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한 초기 부부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가족윤리의 기초적 구조를 구성하는 남녀평등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개화의 관점에서 접근되므로 차별적 지위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남녀 동등권이 원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초기의 가족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개화에 기초하여 남녀아동의 교육평등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평등의 연장선에 부부윤리의 문제를 부차적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1920년 이후에 있어서의 부부윤리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경제적 평등을 부부 또는 남녀평등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주로 가족윤리 담론이 자녀가 아니라 부부의 경제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부모자녀간 윤리를 부차적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부부평등을 1920년 이전에는 인격적 평등에만 국한함으로써 부부평등을 인격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인격적 평등은 방향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적 평등으로 인식하여 인격평등의 전제조건인 남녀경제평등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부부평등을 경제적 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1920년 이전에는 주로 부부윤리가 왜 평등해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 또는 실용적 문제에 한하여 담론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남편심계」(동아일보, 1926. 12. 3)라든지 「총명한 아내의 9가지 비결」(동아일보, 1927. 11. 11) 또는 「부부불화 16개조」(동아일보, 1926. 1. 2)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해야 할 보다 구체적 윤리를 중심으로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서구 자유결혼풍조가 도입되어 확산됨에 따라 조혼 또는 부모에 의해 강제 결혼을 한 기성세대나 젊은 청춘남녀는 「연애결혼」 또는 「자유결혼」을 신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자기인식 및 부부윤리의 핵심을 당사자간 사랑으로 규정하는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부간의 갈등이 잠재형에서 표출형으로 바뀌어 며느리 의한 방화·가출·이혼 등이 사회문제화 할 정도로 폭증되었으며, 가족형태의 담론이 대가족 형태에서 부부중심의 단순가족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1920년대 초부터 1950년 6·25이전까지의 부부윤리는 남편중심의 위계적인 전통적 부부윤리와 평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부부중심 윤리가 서로 충돌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충돌은 잠재된 그리고 본능적인 개인의 행복추구 욕망을 자극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작용했던 서

구적 가족윤리의 확산은 보수적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윤리 또는 전통적 가족윤리의 붕괴로, 신세 때 또는 개화지식인과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습을 타파하고 신문명 사회로의 변화로 인식되었다.

실제적인 사회현상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는 교육의 보급과 서구의 평등사상 및 문물이 확대됨에 따라 가부장적 가족윤리의 부산물인 남성들의 축첩·외입·엄격한 남성중심의 가족제도·부모의 강요된 사랑 없는 일방적 결혼 등에 대해 여성들이 최후수단인 이혼이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 인식 양반들이 「신여성과는 결혼할 수 없다」할 정도로 여성에 의한 이혼이나 가정불화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이후부터는 부자간 서열중심이라는 전통적 가족윤리의 외형이 흔들려 부부중심의 평등적 윤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한 주역은 남성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들의 자각에 의한 것이었으며 교육에 의한 자아의식의 제고, 식민지 조건이 형성한 개화의 필요성에 의해 가정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이 촉발됨으로서 사회에서의 남녀평등보다 가정에서의 부부평등을 여성들은 더 열망하였다. 또한 이혼사유가 전통적 남성중심적인 제한적 사유로부터 양방적인 책임과 의무로, 그리고 애정을 중심으로 한 광의적 사유로 확대됨으로써 「간통」에 대한 여성의 이혼제기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평등은 대안적(代案的) 윤리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부부윤리는 법률보다 관습법을 우선시하여 전통적 부부윤리는 형식적으로만 동요되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하여 이 시기의 부부윤리는 형식적 또는 외형적으로만 변모되기 시작했을 뿐 그 본질은 전통적인 부부윤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시기 부부윤리의 일반 민중적 실상은 서구적 외형 또는 형식과 전통적 내면 또는 본질간의 갈등 속에 있었으므로 전통적 윤리에 매인 부부는 신가족 개념의 부부윤리를 동경했고, 신가족 개념의 부부는 부모와 형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는 등 당시 모든 부부들은 성격은 서로 다르나 갈등 속에 있었다.

(2) 자녀윤리

부모는 자녀를 자애(慈愛)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부모자녀간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해 개화세력이 담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애와 공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이시기 초기에 있어 자녀관은, 전통적 가족윤리의 기축인 효를 불변의 구조로 보아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단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아동이 사회발전론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미를 자녀교육문제와 아들-딸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까지 불변적 기축으로 간주해 왔던 효문제를 시대적 조건과 결부시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의 인격문제가 부모-자녀간 윤리담론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1920년 이후 전개되었던 자녀관은 「자녀는 가정에서 무엇인가」라는 초기의 철학적 담론과는 달리 「부모와 자녀간 관계의 윤리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부모중심의 효가 중심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녀중심의 사랑이 중심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으로 바뀌고 있으며 근대화의 관점에서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와 달리 어린이를 새 가정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자녀중심으로 부모-자녀간 윤리를 담론하고 있고, 그 결과 「부모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라는 권리 중심적 부모-자녀간 윤리담론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의무 중심적 담론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1920년 이후 자녀관은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가문의 자식이라는 유교윤리적 관점과는 달리 부모자녀간 관계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모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아들·딸이라는 차별적 칭호가 평등적 칭호인 어린이라는 말로 통합되어 어린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했고,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선조(祖先)중심이 아닌 자녀 중심의 가족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린이 운동의 실천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논

의된 자녀중심론은 실상에 있어 부부평등 또는 아들·딸 평등이라는 평등원리하의 서구적 윤리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는 부부차별이나 아들과 딸의 차별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차별적 자녀관은 진보적 지식인 및 극도의 빈한한 계층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균열은 형식적이거나 여자의 상속권 인정으로 나타났고, 집을 떠나 공부하거나 취직하는 여자 아이가 증대됨에 따라 시집가기 전 여자아이는 가정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다는 유교전통의 인습이 깨어져 부모의 딸 자식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어 갔다.

(3) 효도윤리

효라는 말로 집약된 부모-자녀간 윤리는 이 시기에 들어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란 이제까지 천륜으로 규정했던 효 문제를 다른 사회적 윤리와 마찬가지로 인륜의 한 범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부모-자식간의 윤리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면 우선 반만년동안 우리 가족윤리사에서 천륜으로 생각해 왔던 부모자녀관계마저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인 인륜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천륜이 인륜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륜이 천륜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고, 수직적 질서를 근간으로 한 부모자녀간 윤리는 결혼 결정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평적 질서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객관화된 부모와 자녀간의 실천적 담론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4) 성역할윤리

'남자를 가르치지 아니함은 내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여자를 가르치지 아니함은 남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규중요람』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조선조 유학에서도 이념적으로는 남녀평등 교육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 민중의 역사현실에서는 여자를 불적(독립신문, 1899. 5. 26)으로 간주하여 교육을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고 사회가 불안했던 조선조 말에 이르러는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다만 민중의 경제기반에 대한 파탄 및 서구열강의 침략 속에서 아녀자와 하층

민중들을 교육시켜 개화시키고자,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한 한글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제국신문, 1903. 6. 19).

여성지위와 관련하여 1920년 이후에 나타난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성의 이혼청구 증가를 통해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가장권이 동요되기 시작했고 과도한 예물과 매매혼적 성격의 풍습으로 인하여 가정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빈곤계층에서 가장권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 실례로 「신식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본처를 두고 재혼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재혼한 하면 곧 개화가 되고 신식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라는 심훈의 미망인이었던 이해영 여사의 회고(이해영, 196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성에 의한 이혼제기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당시 언론은 이혼증가를 「행복을 위해 새도덕을 세우려는 용기의 증대」로 보았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핵심적 가족윤리보다 부차적 가족윤리가 더 급격히 서구화되어 갔는데, 특히 실천적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했던 관혼상제의 경제적인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제한을 일제가 강요하였고 장의 영구차가 등장(동아일보, 1927. 2. 4)되어 장의 문화마저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결혼예식에 대한 신문광고(동아일보, 1925. 10. 13)와 신식 결혼예식(1924년) 및 결혼예식장이 등장(동아일보, 1925. 11. 17)하여 당시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식 결혼식을 올렸고 전통 결혼식을 구식이라 하여 멀리 하였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한국가족윤리의 변화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6·25 전쟁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족윤리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1950, 60년대에 성인기를 지낸 노년세대와 그 자녀세대인 40대 중심의 중년세대, 그리고 중년기의 자녀세대인 청소년세대 등 삼세대 집단의 가족윤리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족윤리관

의 일반적 경향 및 연령집단별 차이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관의 전체 경향이나 영역별 경향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박진숙, 1984; 이미숙, 1997)을 참고하여 윤리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며,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경우는 전통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낮은 경우에는 근대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노년세대는 각 영역마다 중간점수 3점을 상회(전체평균 3.62)하고 있어 비교적 전통적인 윤리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년세대는 3점을 약간 넘은(전체평균 3.18) 정도로서 전통적인 가치성향이 노년세대에 비하여 약화되어 있고, 청소년세대는 대부분 3점 이하(전체평균 2.59)로 전통적 윤리관이 크게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대집단별 차이는 검증 결과 모든 윤리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점수를 비교해보면 노년세대와 중년세대 차이보다 중년세대와 청소년기 세대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윤리 변화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리영역별 점수로 볼 때 노년세대는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 자녀윤리, 성역할윤리, 부부윤리, 부양 및 효도윤리 순으로 전통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중년세대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 성역할윤리, 부부윤리, 자녀윤리, 부양 및 효도윤리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세대 역시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에서 가장 전통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부양 및 효도윤

리, 부부윤리와 자녀윤리, 성역할윤리로 갈수록 근대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집단별 점수 차이를 보면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에서는 전통성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나 성역할윤리나 자녀윤리 등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윤리에서는 노년세대와 중년세대의 점수 차이가 크고, 성역할윤리와 부부윤리에서는 중년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윤리는 중년기 세대부터 변화가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고, 성역할윤리와 결혼윤리는 젊은 세대에서도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윤리관 중에서는 성역할윤리와 자녀윤리의 변화가 가장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 및 효도윤리 역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통성이 약해지고는 있으나, 다른 윤리영역과 달리 노년세대의 효윤리관이 이미 변화하여 전통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세대는 다른 윤리관에 비하여 부양의무윤리 등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있어 가족윤리관 중에서 가장 세대집단간 근접성을 보여주는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에서 세집단 모두 전통성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가족 자체에 대한 전통적 윤리관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김규원(1995), 옥선화(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2>는 선행연구들(김규원, 1995; 양명숙, 1996; 이연주, 1984; 옥선화, 1989; 홍준숙, 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

<표 1> 가족윤리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집단별 차이

	노년		중년		청소년		F
	M	SD	M	SD	M	SD	
결혼 및 부부윤리	3.59	0.50	3.17	0.37	2.39	0.38	452.01***
성역할윤리	3.56	0.85	3.14	0.72	2.20	0.88	235.80***
자녀윤리	3.67	0.67	3.13	0.58	2.48	0.54	242.76***
부양 및 효도윤리	3.39	0.55	3.01	0.51	2.88	0.46	75.87***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	3.91	0.54	3.47	0.48	3.02	0.51	219.34***

Duncan test 결과 '효의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A-B-C로 집단분류됨.

***p < .001

<표 2> 가족윤리관의 성별, 연령별 차이

변인		N	부부윤리			성역할윤리			자녀윤리			효도윤리			친족윤리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노성	남	107	3.58	0.18		3.44	1.98		3.62	1.77		3.34	1.20		3.92	0.18	
	여	146	3.60			3.65	*		3.75			3.42			3.91		
노연령	60-65세	72	3.33	6.79	B	3.16	9.64	C	3.46	7.55	C	3.17	14.00	C	3.73	10.26	B
	66-70세	74	3.59	***	A	3.45	***	B	3.64	***	B	3.27	***	C	3.88	***	B
	71-75세	52	3.69		A	3.64		AB	3.73		AB	3.48		B	3.89		B
	76세이상	55	3.74		A	3.91		AB	3.86		A	3.74		A	4.22		A
중성	남	285	3.29	45.03		3.37	58.71		3.25	23.11		3.16	48.84		3.57	22.99	
	여	328	3.05	***		2.94	***		3.01	***		2.88	***		3.38	***	
중연령	38-40세	31	2.96	7.12	C	3.07	2.51		2.92	7.10	B	2.94	7.48	B	3.43	3.55	B
	41-50세	516	3.16	**	B	3.13			3.13	***	B	2.99	***	B	3.45	*	AB
	51-53세	66	3.29		A	3.30			3.34		A	3.24		A	3.62		A
청소년성별	남	139	2.54	48.71		2.87	236.5		2.68	60.23		3.12	80.59		3.28	79.09	
	여	189	2.24	***		1.70	***		2.28	***		2.70	***		2.82	***	
청소년연령	15세	17	2.06	10.18	C	1.37	19.47	C	2.15	41.50	B	2.45	14.89	C	2.58	13.75	C
	16세	83	2.30	***	B	2.04	***	B	2.37	***	B	2.78	***	B	2.92	***	B
	17세	168	2.52		A	2.50		A	2.68		A	3.02		A	3.18		A
	18세	60	2.28		B	1.77		B	2.27		B	2.73		B	2.84		B

*p<.05 **p <.01 ***p <.001

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성과 연령으로 보고 이의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노년의 성별 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윤리영역에서 변인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노년세대의 경우 성별 차이는 성역할윤리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여성 스스로가 전통적인 성역할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년, 청소년세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점수가 낮으므로 여성의식 변화는 중년기 세대부터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근대성은 양명숙(1996) 등의 연구에서 지적한바 있다.

연령별로는 노인의 경우 모든 윤리관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년세대, 청소년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세대는 1세 단위로 연령구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차가 나타나고 있어, 윤리관에 있어 연령적 변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오

있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성역할윤리에서의 점수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년의 경우 성역할윤리에서의 연령차는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중년기의 성역할관은 어느 정도 변화된 후 집단내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가족주의 및 친족윤리관은 특히 76세 이상과 그 이하 집단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효도윤리의 경우에는 70세 이하 집단과 그 이상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가족윤리의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윤리 영역을 문헌 혹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가족윤리는 우리 사회의 사상적 변동과 경제적 변동의 큰 흐름 속에서 그 변화의 특성과 과정이 해석될 수 있다. 유교적 윤리질서로서 엄격한 사회구조를 편성해 나갔던 이조 초기의 사상적 변동과정이 한국가족사에 핵을 그은 크나큰 계기였다면, 6·25 전쟁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경제 조직화가 급진전한 1950년 이후의 경제적 변동이 또한 우리 가족생활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변인이 되고 있다. 물론 전쟁 이전부터 지역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6·25 이후의 우리 삶의 변화는 특히 가족윤리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실천적 행태에 있어서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혼의 다양성, 남녀 평등의식, 쌍부적 부모자녀관 등의 중점적 특성은 이조시대 이전의 윤리관과 외형적 맥을 거의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우리가 추구할 가족윤리의 지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 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윤리적 흐름 속에서 찾아내고 이를 닦아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리라 본다.

둘째,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 6·25전쟁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은 가족윤리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6·25전쟁 이후의 세대와 성장기 혹은 성인기에 6·25전쟁을 겪은 세대와의 차이가 윤리관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6·25전쟁에 의해 봉건적 사회체제가 심각하게 붕괴되었다(김두헌, 1985)는 실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문화 침투의 강력한 수단인 정보화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세대별, 연령별 차이는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최근의 여성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윤리관의 세대별, 성별 차이는 가족갈등이나 가족문제를 파생시키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가족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은 이러한 가족윤리의 새로운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회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가족윤리 변천, 즉 고유가족윤리에서 불교적 가족윤리로, 그리고 유교적 가족윤리에서의 변천은 모두 동양적 문화가치관 틀 속에서 변모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 들어서의 가족윤리 변화는 종교적, 지역적으로 좀 더 이질적인 문화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색이다. 이러한 서구적 문화변동은 차칫 잘못하면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극대화과 더불어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와 직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가족의 중요성 인식이나 효의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비교적 일관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족윤리의 특성상 이러한 두가지 측면의 윤리관은 가장 오랫동안 견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시대구현적인 방법으로 수용해나가고자 한다면, 새로운 세대가 이를 자신의 생활 속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윤리 요소를 근간으로 하되, 다만 이를 실천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함에 있어 보다 가치실현적이고 적응적인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숙경(1992).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2)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3) 『高麗史』.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 4)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89-106.
- 5)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6) 김동일(1991). 성의 사회학. 문음사.
- 7) 김두헌(1985).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 8)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김순옥 류점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 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논문집, 73-101.
 - 10) 김일명(1988).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대 교육대학원석사 논문.
 - 11) 김태길, 심재용, 이용필(1991). 현대사회와 윤리. 박영사.
 - 12) 김태길(1996).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 13) 독립신문.
 - 14) 동아일보.
 - 15) 리상호 역(1990). 북한 삼국유사. 신서원.
 - 16)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29-147.
 - 17)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교문사.
 - 18)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역(1990). 삼국사기. 신서원.
 - 19)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역(1991). 고려사. 여강출판사.
 - 20) 『三國史記』. 景仁文化社 影印本.
 - 21) 『三國遺事』. 李東歡 校勘(민족문화추진회 影印本)
 - 22) 『三國遺事』. 한국불교전서본. 동국대 출판부.
 - 23) 서병숙(1988). 노후직업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 24) 성규탁(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28-43.
 - 25) 성미애, 옥선화(1997). 효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5(3), 245-257.
 - 26) 손인수(1983). 한국인의 전통적 윤리의식. 정신문화연구원.
 - 27) 송시열(1986). 게너서. 정음사.
 - 28)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29)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67-181.
 - 30) 이연주(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09.
 - 31) 옥선화(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Ⅱ. 교문사.
 - 32)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3) 이가원 역(1991). 삼국유사신역. 태학사.
 - 34) 이덕무(1993). 사소절. 명문당.
 - 35)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생활과학 연구논문집 13, 87-105.
 - 36) 李丙燾 譯(1984).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 37) 李丙燾 譯(1990). 삼국유사. 삼성출판사.
 - 38) 이정덕(1985).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71-186.
 - 39) 이해영. '고독의 벼랑에서 50년', 「가정생활」, 1963년 2월호.
 - 40) 전석호(1996). 정보사회론. 나남.
 - 41) 정중희(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제국신문
 - 42) 지교헌(1973). 한국인의 가족윤리의식과 그 행태. 청주교대논문집 9.
 - 43) 지교헌(1986). 가정의 윤리적 특성과 사회교육적 기능. 「개인과 국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4) 지영숙(1994). 진전가정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정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 국역 울곡전서 V 성학집요.
 -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국역 울곡전서 VI 격몽요결.
 - 47)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 48) 허 훈(1988). 한국대학생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8권, 89-106.
 - 49)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 출판부.
 - 50)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 효성여대 석사논문.
- 51) Bormann, C. D., Stockdale, D. F. (1979). Value of childre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58
- 52) Leavy, R. L., & Hough, O. B. (1983).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p. 57.